

## 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통제요인들의 변이에 관한 연구 : 성 차이를 중심으로

김 정 규\*

### 초 록

본 연구는 1,039명의 청소년들에 대한 설문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각 요인들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변이하는지 분석을 시도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 집단을 전체집단과 남자청소년, 그리고 여자청소년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전체집단에서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청소년들보다 성평등 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차이는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남녀 청소년들을 비교한 결과, 첫째, 가부장가족구조에서 성장한 남녀 청소년들일수록 모두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둘째,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남자청소년들의 경우 성평등 의식이 높은 반면, 여자청소년들에게는 그 영향이 없었다. 셋째,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아버지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넷째, 종교성은 여자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에만 영향을 미쳐서 종교성이 높을수록 보수적 성역할 태도를 보여주었다. 다섯째,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여자청소년일수록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지닌 반면, 남자청소년들에게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섯째, 자아존중감과 폭력성향이 높은 남자청소년들은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를 지니는 경향이 높았지만, 여자청소년들에게서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여러 변인들의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변이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주제어 : 청소년, 성역할 태도, 성 차이

\* 계명대학교 국제학대학 미국학과 조교수

## I. 서 론

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성역할 태도는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사회는 성별에 따라 규정하고 역할을 부여하고 기대한다. 특히 청소년 시기는 성역할에 대한 정체감이 가장 두드러지게 형성되는 시기이며,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라 성평등 의식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다(곽삼근 외 2005). 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는 다양한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어 성인이 된 후 가족, 부부관계 등과 같은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직업, 사회적 지위 등 공적영역에서의 성평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성들은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여성들은 가사와 자녀양육 등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따라서 남성들에게는 사회적 성공과 지위와 관련된 공적영역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고, 여성들에게는 적극적인 것 보다는 수동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에 관한 가치가 더욱 중요시 여겨졌다.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유교적 전통에서의 남녀 관계를 강조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발전해 감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남녀 역할의 구분이 오늘날 많이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해 가는 사회적 여건은 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 가족구조의 형태가 청소년 성역할 태도의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성역할 태도의 형성과 관련된 가치와 특징들이 남녀의 성별 차이에 따라 독립적인 영향력을 지니는지 등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하다.

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의 형성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첫째,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적인 요인들이다. 학교 등에서 받는 직접적인 성평등 교육의 효과는 차치하고, 가족과 부모, 종교 등과 같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구조는 청소년들을 환경적으로 제약하여 성평등에 관한 가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상승한 것은 인과관계의 방향이 어떠한지 간에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와 문화적 규범과 관련이 있다. 가족과 부모는 청소년들과 일차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가부장 가족 형태에서 탈피한 평등한 가족의 형태를 필수로, 그리고 어머니의

사회적 역할이 많을수록 그러한 가족 속에서 사회화된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종교는 또 다른 환경적 구조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족과 부모가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없는 강제적인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종교는 선택할 수 있는 자발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종교 선택은 대부분 부모에 의해 태어날 때부터 혹은 성장과정에서 부모와 가족의 종교적 배경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종류와 종파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종교는 성에 대해서 보수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성역할에 대한 가르침도 전통적인 가부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적 믿음 혹은 종교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을수록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둘째, 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는 개인적인 성격 혹은 기질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전통적인 가부장 사회에서는 남성다운 가치와 여성다운 가치가 다르게 규범화 되었다. 따라서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이들에게는 주로 독립심과 책임, 자존감과 사회적 성취, 그리고 적극성과 공격적 성향 등과 같은 기질을 강조해 왔고 딸에게는 이러한 가치를 덜 강조해 왔다. 따라서 남성적인 가치에 속한 기질과 성향을 어느 정도 띠고 있는냐에 따라 성평등 의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라 이러한 기질과 성향이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자청소년들의 경우 자존감과 사회적 성취 등과 같은 남성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성향을 많이 지닐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고수할 경향이 크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자청소년들의 경우는 정반대로 자존감과 사회적 성취와도 같은 기질을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보다 진보적이고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지닐 확률이 더 높다. 왜냐하면 여성의 역할 증대와 지위 상승은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남녀구분의 문화적 규범을 탈피하는데서 부터 시작한 것이고 남녀의 성평등 의식은 자존감과 사회적 성취와도 같은 전통적인 남성적인 가치를 양성적인 가치로 환원하여 사회적 성공을 위해 중요한 가치로 여성들에게도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성별의 차이는 성역할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물론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오는 결정요소들이 있겠지만, 이보다는 성별에 따른 사회화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적 요인과 개인적 기질 등이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자청소년은 가부장적

가치를 나타내는 남성성이, 여자청소년들은 여성성이 높은 것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적 규범이 여전히 가부장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성별에 다른 성역할 태도는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간에 차이가 있는데 주로 여자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오윤자, 2003). 이것은 여자청소년들 보다는 남자청소년들이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더 많이 지니고 있는데 반해, 여자청소년들은 변화해가는 사회의 성에 관한 문화적 규범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 양성 평등적인 성역할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김소정, 2008; 이윤석, 2004). 결국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개인적 요인들은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구조적 요인들과 개인적 요인들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나는지를 경험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가부장적 가족 구조는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 형성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머니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이 아들과 딸의 성평등 의식과 차별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그 자녀들과의 관계가 자녀들의 성역할 태도에 끼치는 효과는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가족 구조가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인지를 살펴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또한 성역할 태도에 보수적인 종교의 영향력이 존재하는지, 더 나아가 청소년 성별에 따른 상이한 영향력을 지니는지에 관한 것은 선행연구가 미미하므로 이를 탐색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취, 자존감, 폭력성 등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가치로 여겨졌던 것들이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라 성역할 태도에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를 실증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은 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에 관한 가치관과 고정관념의 형성에 관한 이해를 위해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부모의 성역할 태도와 가족 구조

전통사회에서 산업화를 거쳐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과 권력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 가족구조의 변화도 이러한 사회변화와 맞물려 진행되어 오고 있다. Giddens는 전통가족에서 현대가족으로의 변화는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인 권력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성에 관련한 규범들의 변화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고 주장한다(Giddens, 1990). 전통사회에서는 성에 따른 사회적 기대와 규범이 남성중심적 가치관에 의해 지배되고, 여성에 대한 억압과 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였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가부장적 전통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더 이상 가부장적 가치에 구속되지 않는 개인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전통적 가부장 사회와 오늘날의 보다 평등화된 사회가 다르듯이 가족의 형태가 가부장적인 성격을 띠느냐 아니면 보다 평등한 역할 구조를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나름의 독특한 가족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화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처한 하나의 구조로 작용함으로써 성역할 태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oore와 그의 동료들은 부모의 성에 대한 규범은 가족의 구조가 가부장적이나 평등한 구조를 가지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Moore et al., 1986). 그들에 의하면, 전통적 가부장가족은 관습과 태도가 보수적일 뿐 아니라 성에 대한 여러 가지 규범들도 보수적으로 나타난다. 부모의 태도와 성향이 전통적이거나 아니면 진보적이거나에 따라 '차별적인 부모통제'에 의해 청소년들의 사회화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Dittus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신념이나 가치는 직간접적으로 자녀들에게 전달된다고 밝히고 있다(Dittus et al., 1999). 따라서 자녀들은 부지불식간에 부모의 신념체계와 가치관의 성향이 부모와 유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청소년들이 자라온 가족의 형태에 따라 차별적인 사회화가 진행되는데, 현대사회의 특징을 담보한 평등가족의 형태를 지닐수록 가족 안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와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수동적이거나 의존적이지 않고, 전통적인 가치에 도전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가족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기 보

다는 성평등 의식이 더 강할 수 있다.

한편, Hagan과 동료 연구자들의 권력통제이론은 가부장 가족 권력구조가 청소년들의 성차이에 따라 어떻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Hagan et al., 1985; 1987; 1990). 권력통제이론에 의하면, 가부장가족은 전통적인 가족형태로서 남편이 직장에서 권위적인 위치에 있고 반대로 아내는 그렇지 못한 가족을 지칭한다. 그리고 가족 밖에서의 권력이 가족 안으로 투영되어 아내와 자녀들은 가부장적 권력의 대상이 된다. 특히 딸에게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권력이 어머니에 의해 매개되어 행사되어, 딸은 권력의 직접 감시 대상이 되는 반면, 아들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감시와 통제의 차이는 청소년 일탈에 영향을 미쳐 딸은 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탈을 적게 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평등가족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가족에서의 권력과 지위에서도 변화가 나타나 아내와 남편의 권력이 서로 균형을 유지하는 가족을 말한다. 이 가족에서는 남편의 가부장적인 권력이 아내 혹은 딸에게 직접적으로 행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가족에서 성장한 딸은 그 만큼 가부장적 권력의 감시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이것이 동시에 일탈의 자유를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평등가족에서의 남녀 청소년들의 일탈의 차이는 줄어들게 된다. 권력통제이론은 사회변화 속에 가부장적 권력의 변화가 가족에서의 자녀 통제와 사회화에 어떻게 맞물려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연결고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족에서의 가부장적 권력이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의 논의한 바를 청소년 성역할 태도에 적용해 본다면, 가족이 가부장적인 형태를 띠느냐, 보다 평등한 형태를 지니느냐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권력통제이론에서 제시하듯이 가부장적인 권력의 수행대상이 남자보다 여자라는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가족의 환경이 가부장적이냐 평등하냐하는 것은 남자청소년의 성역할 태도보다는 여자청소년의 성역할 태도 형성과 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변화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이며 도덕적인 가치에 도전하는 것은 여성이며, 평등한 가족의 형태로 갈수록 그 변화의 촉발은 여성의 역할 변화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남성의 경우는 그 역할의 변화가 미미하거나 여성의 변화에 뒤따르는 사후적 변화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청소년들의 태도와 부모의 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 아버지의 태도보다는 어머니의 태도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윤석, 2004). 이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에 관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자녀의 성역할 태도 형성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의 성향이 평등할수록 어머니의 영향력이 큰 것이고 어머니를 역할 모델로 삼는 여자청소년들은 보수성을 강요받기 보다는 자율의 가치가 더 존중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할 개연성이 높다. 그렇다면 가부장 혹은 평등적인 가족의 특성이 남자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와는 관계가 없는 것일까? 가부장구조가 성별 평등 의식을 더욱 강화하는지, 아니면 평등가족의 특성이 남자청소년들에게도 의미 있는 정도로 영향을 미쳐 성평등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유효한 영향을 지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관한 것은 여전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두 가지의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청소년들이 성장해 온 가족의 분위기와 부모의 성역할 행태가 가부장적인 특성을 지니느냐 아니면 보다 평등한 특성을 지니느냐에 따라 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가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성별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어머니의 직장유무가 자녀들의 성역할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직장이 있는 가족은 어머니의 사회적 활동 자체가 가족의 분위기나 부모의 성역할 태도와는 독립적으로 자녀들의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이 자녀들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부모와의 애착

청소년들의 정체체감 형성에 부모와의 애착 정도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다른 성역할을 수행하고 이들과의 관계는 자녀들의 성역할 태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아들과 아버지, 혹은 딸과 어머니의 관계와도 같은 동성부모와의 애착이 성역할 형성에 의미 있는 관계를 가져올지, 아니면 아들과 어머니, 딸과 아버지와의 이성부모와의 관계가 나름의 의미를 지닐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Arditti 등의 연구에 따르면, 여자청소년들이 여성성에 대한 정체감 형성

에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주요하게 작용하고 여자청소년들이 남성성의 특징을 수용하고 형성하는 것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주요하게 작용한다고 밝힌다. 말하자면 부모와의 애착 정도가 부모의 성에 따라 성역할 태도의 형성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Arditti et al., 1991). 그러나 미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다른 연구에 따르면, 양성성을 띤 사람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와의 관계가 다 돈독한 것으로 나타났다(Haigler et al., 1995). 반면, 이성의 부모와의 애착의 정도가 양성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 이성 부모의 역할이 서로 다른 성을 이해하게 하는 양성성의 형성에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는 연구도 존재한다(Forbes & Adams-Curtis, 2000). 우리나라 여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유성경 등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와의 애착이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와의 관계가 유의미한 반면, 어머니와의 애착은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에게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성경 외, 2007). 그러나 최해림은 어머니와의 애착이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아버지와의 애착은 성역할 태도에 의미 있는 관계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최해림,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의 정도가 부모의 성과 자녀의 성에 따라 성역할 태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3. 종교성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환경적 구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종교이다. 그런데 종교가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구조로 작용하는 것은 종교 자체가 지닌 성역할 태도에 대한 보수성 때문이다. 물론 가장 보수적인 기독교의 교파에서조차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와 호모 섹슈얼리티 등 개인적 가치에 대한 종교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Petersen & Donnenwerth, 1998).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는 종교가 성역할 태도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Voicu는 유럽에서의 종교의 세속화와 성역할 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종교의 세속화가 성(gender)에 대한 가치와 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Voicu, 2009). 유럽전역에서 진행된 종교의 세속화는 종교가 지닌 역할을 상실



함으로써 개인의 가치체계를 파편화시켰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바뀌게 된 것이고 여성의 사회적지위 증대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평등의식을 쉽게 가질 수 있게 된 계기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는 종교의 교파에 따라 가르침과 특성이 다르고 그것이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Lottes & Kuriloff, 1992). 더 나아가 미국 대학생들의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여러 영향 중 종교적인 신앙심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Morgan, 1987).

우리나라의 경우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을 막론하고 종교의 가르침은 남성과 여성을 분리시키고 전통적인 가부장적 남성 위주의 종교관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적인 신앙심이 깊거나 종교적 행사나 집회 등에 노출이 많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종교적 가치가 남녀 성역할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깊은 신앙심은 종교가 지닌 사회화의 역할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그 바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종교성이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4. 학업성취수준과 성취동기

학업성취수준과 성취동기는 학교에서의 학습내용에 관한 단순한 지적능력의 결과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가치 기준을 습득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교육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성역할에 대한 평등의식이 바람직한 가치로 교육되어 진다면, 학업성취능력과 성취동기가 뛰어난 청소년들일 경우 성역할에 대해서 평등의식을 지닐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경험적인 연구에서도 성역할 정체성이 양성성을 지닌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성취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남성성, 여성성, 그리고 미분화 유형의 차례로 나타났다(오윤자, 2003). 그런데 학업성취수준과 성취동기가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라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새로운

의미가 있다.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전체적으로 학업성취능력과 성취동기가 성평등 의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띤다고 할지라도, 그 영향의 정도는 남녀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가치는 가부장적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더 불평등한 위치에 있었다. 이것을 성평등의 차원으로 극복하기 위한 주체는 남성이기 보다 여성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노력이 더 적극적 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여성의 사회적 성취는 여성의 지위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그것이 기존의 가부장적 성역할의 가치를 무디게 만들고, 성평등 가치를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로 변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업성취수준과 성취동기는 여성의 지위 상승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성취와 관련된 가치는 남성적 가치였기 때문에, 남자 청소년들보다는 이러한 가치를 획득한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성평등 의식 형성에 훨씬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수준과 성취동기가 성역할 태도 형성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남자와 여자청소년들에게 차별적으로 작용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업성취수준과 성취동기의 영향력이 여자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에 더 강한 영향력을 지닐지, 아니면 성취수준이 뛰어난 여자청소년들이 가부장적인 사회적 성역할 규범을 극복하지 못하고 기존의 것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남녀 청소년의 차이가 미미할 것인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5.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과 성역할 정체성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들에 의하면, 양성성을 띤 사람들이 생물학적 혹은 사회적으로 각자의 성에 부과된 내면적인 구속에서 보다 자유롭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개념이 속박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됨으로써 양성성을 가진 사람들의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주장한다(Bem, 1974). 그러나 한편으로 남성성과 여성성 둘 다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와 (Spence & Helmrich, 1978) 남성성이 자아존중감과 관련성이 더 높다는 주장 (Whitely, 1983)도 동시에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성역할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했음을 보고하고 있는 연구도 있지만(배경의 외,

2007; 홍성례, 2007), 다수의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두 변인의 상관관계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반 성인 여성들의 경우 여성성의 증대가 자아존중감을 높이지만 남성성은 자아존중감과 관계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 연구가 있는 반면(정선영 외, 2002), 남성성을 많이 가진 여자청소년들이 여성성을 많이 가진 여자청소년들 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지만,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가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연구도 있다(유성경 외, 2007). 그렇지만 가장 많은 결과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만 양성성을 띤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유가호, 1993; 이재연, 1983; 이숙, 1984; 정옥분, 1986; 정진경, 1990). 달리 말하면 양성성을 띤다는 것은 성평등 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을 말하고 이 집단의 자아존중감 또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행적인 연구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남자와 여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의 비교분석이다. 다른 하나는 성역할 태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논리적 관계의 구성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살펴보면, 선행적인 연구들처럼 남자든 여자든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양성성을 띠게 되고 이것이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이 자신의 존재가치와 신념, 가치관 등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Rosenberg, 1965). 남자의 경우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자신이 지닌 남성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자부심을 느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남성적 가치를 더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성평등 의식이 약해질 수 있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기존의 수동적인 여성의 가치를 넘어 남성적 가치를 수용하고 획득한 경우에 더욱 두드러질 수 있으므로 성평등 의식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성역할에 대한 태도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남녀 청소년들의 성별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인 영향력을 수행하는지 고찰해 볼 것이다.

## 6. 폭력성향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은 갈등의 원인과 책임을 회피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단서를 적대적으로 받아들이며, 과거 갈등의 경험을 현재의 유사한 사건에 적용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최해립, 2005). 폭력성은 이러한 공격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남성성의 특징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남성성은 거침, 비동조성, 모험심, 공격성 등이 합쳐진 특성을 띠고 있고 행동적 특성도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전에는 남성성은 남자들의 특징으로 여성성은 여자들의 특징으로 이분화하여 개념화 되었다. 그러나 이후 양성성 이론이 발전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여성성과 남성성을 함께 지닐 수 있다는 방향으로 개념적 변화가 이루어졌다(정진경, 1990). 물론 여전히 성 차이에 대한 주장은 유효하게 남아있다(Berk, 2003). 그렇지만 폭력성이 주로 남성성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해도 여자이든 남자이든 그 특징을 함께 지닐 수 있으며 폭력성이 높을수록 새로운 가치질서에 순응하기 보다는 저항하고 반항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남자청소년들의 경우 폭력성이 높을수록 새롭고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라 여겨지는 성에 대한 평등의식을 받아들이기보다 기존의 가부장적 가치를 왜곡되게 고수할 개연성이 높다. 반면, 폭력성이 높은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내면화하기 보다는 과거 여성성의 상징인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태도에 저항하여 성역할에 대한 평등의식이 더 높을 수 있다. 경험적인 연구에서도 물리적인 힘이나 공격성이 높은 남자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닌 경향이 높은 반면(Heimer & De Coster, 1999), 폭력을 비롯한 비행을 저지르는 성향을 지닌 여자청소년들은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탈피한 경우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밝히고 있다(Heimer, 1996). 결국 폭력성은 남성성, 가부장적 권력과 연결되기 때문에 폭력적 성향을 얼마나 가지느냐 하는 것은 성역할 태도에 대한 관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폭력성향이 성역할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더 나아가 남녀 성별의 차이에 따라 성역할 태도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변이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의 자료

본 연구는 경북 포항시의 남녀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2005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이루어졌고, 설문 조사자의 통제 하에 학생들의 교실에서 각 학급 별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를 위해 지역의 남녀 인문계 고등학교 전체에 조사에 대한 안내장과 협조문을 발송하였고, 추가적으로 전화와 직접 방문을 통해 협조를 구하였다. 이들 학교 중 5개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허락받았다. 조사대상자의 추출은 각 학교 별로 남녀의 비율과 학년을 고려한 뒤 학급 단위로 선정하였다.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자들에게 필기구를 비롯한 문구류를 기념품으로 제공하였다. 최종적으로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은 남학생 539명과 여학생 600명을 합하여 모두 1,139명인데 학년별로는 1학년이 434명, 2학년이 396명, 그리고 3학년이 309명이다.

#### 2. 측정

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느냐에 대한 응답으로 구성하였다.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해야 가정은 평화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의 할 일과 남성의 할 일이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은 직장에서 일하기보다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세 문항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개의 범주를 두고 그 값을 더한 것을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평등 의식이 높고 낮을수록 성평등 의식이 낮은 가부장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구성하였고, 이 측정치의 Cronbach's alpha 값은 .727이다.

청소년들이 가부장적 가족에서 성장했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평등한 가족 환경에서 자라났는지를 추정해보기 위해 다음 두 문항의 측정치의 합으로 가족배경을 측정하였다. '우리 집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꿈쩍 못하실 정도로 아버지의 권위가 상당

하다’, 와 ‘우리 집에서는 무슨 일이든 여자(어머니)보다 남자(아버지)가 우선으로 한다’라는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5가지 응답 범주로 나누어,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부모의 태도와 가족적 분위기가 가부장적인 것으로 측정치를 구성하였다. Cronbach's alpha 값은 .730이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지위의 상승, 그리고 이에 따른 가족의 구조적 변화가 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직업 유무를 측정하였고 직업이 없으면 0, 직업이 있으면 1로 부호화 하였다.

부모와의 애착 정도와 자녀의 성역할 태도와의 관계 분석을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를 각각 나누어 측정하였다. ‘당신은 (어머니)(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본받고 (어머니)(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분이 되고 싶습니까?’라는 두 문항을 사용하여 어머니, 아버지와의 애착의 정도를 측정하였고, ‘아주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개의 범주를 제공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종교성은 두 문항의 합으로 측정되었다. 하나는 교회, 성당, 절 등에서의 종교의식 또는 행사 모임에 참석하는 빈도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생활 속에 종교적 신앙이 차지하는 정도를 조사한 것이다. 각 문항에 대해 6단계의 응답범주를 제공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종교성이 높은 것으로 구성하였다. Cronbach's alpha 값은 .874이다. 성취동기의 측정을 위해서는 ‘내가 부모님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님 보다 경제적으로 더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고 확신한다’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이르기까지 5개의 응답범주를 부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학업성취수준은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자신의 전반적인 학업성적을 측정하였는데 100점에서 60점 미만까지 5점 단위로 모두 9개의 응답범주로 나누어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측정점수가 높은 것으로 구성하였다.

자이존중감은 ‘나는 이 세상을 위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5가지 범주로 제공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이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부호화 하였다. 청소년들의 폭력적 성향은 실제 폭력관련행위에 가담한 경험을 기초로 하여 측정하였는데 ‘초등학교 이후 형제자매와 다툰 것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고의로 때린 적이 있다’, ‘학교나 공공기물을 고의로 부순 적이 있다’, ‘친구들과 집단으로 싸움을 한 적이 있다’, ‘친구들과 함께 어떤 사람(학생)을 때린 적이 있다’의 4문항에 대해서 빈도수를 더한 것을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높은 점수일수록 폭력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고, Cronbach's alpha 값은 .676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성별은 여자는 0, 남자는 1로 각각 값을 주었다.

#### IV. 자료의 분석

〈표 1〉은 전체집단, 그리고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들 간의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한 것이다. 전체집단의 성역할 태도의 평균점수 12.37은 가부장적 성향과 평등성향의 중간 값이 9이고 가장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지닌 경우를 15라고 할 때,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남녀 성역할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평등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녀 청소년들을 비교해 보면,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보다 성역할 태도에서 성평등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성역할 태도에서의 남녀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 사회화의 차이, 가부장적 문화규범의 차별적 영향 등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부장가족의 점수는 두 개의 응답문항을 합한 것으로 가장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점, 가장 가부장적인 가족은 10점이 부여되었고 이때 중간 값은 6이다. 따라서 가부장가족 평균점수 3.50은 청소년들이 느끼는 가족적 분위기가 가부장적이라기 보다는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 수치가 가족의 형태를 가부장가족과 평등가족을 의미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나누어 측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가족에 대한 가치가 실제로 청소년들의 행위와 태도에 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을 측정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것을 기준으로 가족의 형태를 본다면, 우리 사회에 지금까지 만연했던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형태는 이제 많이 사라졌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을 비교해 보면, 남자청소년들이 여자청소년들보다 자신의 가족 환경을 더 가부장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이러한 점은 몇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먼저, 나타난 결과 그대로 이 표본에 속한 남자청소년들이 속한 가족이 더 가부장적인 가족의 형태를 띤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여자청소년들의 시각과 남자청소년들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로인

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성별의 차이는 사물을 보고 느끼는데 있어서도 차이를 가져 오고, 자신이 보고자 하는 모습을 더 부각 시켜 각인시키는 경향이 있다. 딸로서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고 느끼는 것과, 아들로서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딸이 있는 가족과 아들이 있는 가족의 분위기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가족은 사회화가 진행되는 일차적인 곳이고 자녀의 성에 따라 자녀를 사회화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아들의 경우 독립심, 책임감, 모험심 등을 딸보다 더 강조하여 사회화가 수행된다면 사회화의 차이에 따른 가족적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다.

<표 1> 전체집단, 그리고 청소년 성별 간의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비교

변인	전체집단	여자청소년	남자청소년	t값
성별	.47 (.50)	--	--	
성역할태도	12.37 (2.50)	13.26 (1.96)	11.37 (2.66)	13.65**
가부장가족	3.50 (1.88)	3.28 (1.79)	3.75 (1.95)	-4.16**
어머니직업유무	.49 (.50)	.48 (.50)	.50 (.50)	-.76
어머니애착	3.54 (1.01)	3.52 (1.03)	3.55 (.99)	-.47
아버지애착	3.30 (1.13)	3.23 (1.13)	3.38 (1.13)	-2.23*
종교성	5.35 (3.57)	5.58 (3.61)	5.08 (3.51)	2.35*



변 인	전체집단	여자청소년	남자청소년	t값
성취동기	3.79 (.85)	3.82 (.85)	3.75 (.85)	1.51
학업성취수준	5.35 (2.10)	5.35 (2.18)	5.35 (2.00)	-.03
자아존중감	3.53 (1.01)	3.47 (1.02)	3.59 (.99)	-2.02*
폭력성향	5.96 (3.71)	5.43 (3.21)	6.54 (4.12)	-5.08**

\*p < .05, \*\*p < .01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어머니의 직업유무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 어머니가 직장이나 하시는 일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모와의 애착 정도는 어머니와의 애착 평균점수 3.54가 아버지와의 애착 평균점수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녀를 구분해서 보더라도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서 어머니와 애착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이 모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그런데 어머니와의 애착 정도만 볼 때에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반면, 아버지와의 애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별 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청소년들의 아버지와의 애착정도가 여자청소년들에 비해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성은 여자청소년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종교적이라는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수준에서 남녀 청소년들의 성별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남자청소년들의 경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성향은 남자청소년들의 폭력성향이 여자청소년들 보다 높았다. 이것은 앞서 논의했던 많은 기존의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남자청소년들에게는 남성성이, 여자청소년들에게는 여성성이 더 강조되고, 폭력성향을 남성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성향 중 하나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2> 성역할 태도에 대한 전체집단, 그리고 청소년 성별 간의 회귀분석 비교

변 인	전체집단	여자청소년	남자청소년
성별	-1.656** (-.332)	--	--
가부장가족	-.271** (-.206)	-.142** (-.134)	-.380** (-.278)
어머니직업유무	.350* (.070)	.257 (.067)	.529* (.099)
어머니애착	.039 (.016)	.007 (.004)	.028 (.010)
아버지애착	-.107 (-.049)	-.165* (-.097)	-.024 (-.010)
종교성	-.016 (-.023)	-.054* (-.101)	.018 (.024)
성취동기	.160 (.054)	.295** (.130)	-.041 (-.013)
학업성취수준	.064* (.054)	.087* (.100)	.070 (.053)
자아존중감	-.174* (-.071)	-.077 (-.041)	-.236* (-.088)
폭력성향	-.069** (-.103)	.010 (.017)	-.122** (-.191)
R square	.219	.073	.142
F-value	30.217**	4.954**	9.342**

\*p < .05, \*\*p < .01 괄호 안은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표 2〉는 각 변인들이 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관찰하기 위해서 전체집단과 남녀 청소년들의 성별 간의 회귀분석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전체집단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성별은 회귀식에 포함 된 모든 변인들 중 성역할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앞서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자청소년들은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지니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성별은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고도 가장 뚜렷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결국 자신의 성에 따라 성에 대한 관점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고,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라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가부장가족 형태는 예상했던 대로 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에 의미 있게 작용하고 있는데, 가부장가족에서 성장한 청소년일수록 가부장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가족환경과 부모의 성역할 모델이 청소년들의 성평등 의식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보았던 기존의 연구들에서 보여 준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부모의 태도, 가족에서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의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삶에 대한 가치와 태도 등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역할에 대한 평등의식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의 직업유무는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지위상승과 연결된다는 사회구조적인 맥락을 반영한 것이다.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성역할 평등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단순한 집안의 분위기나 부모의 성역할 모델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어머니가 직업이 있다는 것은 가족구조 자체가 전통적인 가부장구조에서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에서도 어머니의 직업유무는 가족 내의 분위기가 가부장적이나 평등하나하는 것과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장생활을 하는 어머니를 둔 청소년들은 어머니의 직장 생활 자체가 여성의 성역할이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남성과 큰 차이 없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성역할 태도를 더 평등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부모님의 애착이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어머니와의 애착과 아버지와의 애착 모두 성역할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성에 따른 애착의 정도가 성역할 정체감 형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 (Arditti et al., 1991)와도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평등 의식이 높은 양성성을 띤 사람들이 어머니 또는 아버지, 아니면 양부모 모두와 애착의 정도가 높다는 결과와도 상반되는 것이다(유성경 외, 2007; Haigler et al., 1995). 그러나 여전히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이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라 성역할 태도에 차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종교성도 청소년 전체집단에서 성역할 태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 또한 종교가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고수함으로써 종교성이 높은 청소년들일 수록 가부장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닐 것이라는 예상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하지만 <표 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남자청소년들 보다 종교성이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종교성이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라 성역할 태도 형성에 민감하게 작용하는지는 여전히 지켜보아야 한다.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수준이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성취동기는 그 영향력이 전체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성취동기의 경우 남성의 성취동기와 여성의 성취동기는 성역할 태도에 대해서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영향력은 어느 한쪽의 영향력이 일방적으로 크지 않는 한 서로 상쇄되어 영향력의 크기가 미미할 수 있다. 반면 학업성취수준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학업성적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지닌 것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취수준이 가장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 양성성을 지닌 청소년들이 가장 많다는 기존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오윤자, 2003).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성역할에 대한 평등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성성을 띤 사람들이 각자의 성에 부과된 구속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높을 수 있다는 기존 연구들에서 밝힌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유가호, 1993; 이재연, 1983; 이숙, 1984; 정옥분, 1986; 정진경, 1990; Bem, 1974).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남성성 혹은 여성성과의 관계에서 차별적 성격을 나타내는지는 여전히 주목해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폭력적 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불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적 성향은 남성적이고 가부장적인 상징으로 대변할 수 있다. 그리

고 폭력적 성향이 높다는 것은 이러한 남성적 가치를 내재한 것이고 그럴수록 성역할 태도 또한 전통적인 가부장적 태도를 지닐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가정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들에게 같은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전체집단에서 나타난 각 변인들의 영향력이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표 2>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칸에 남자와 여자청소년들을 각각 나누어 변인들의 영향력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부장가족은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 모두에게서 성역할 태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의 크기 정도는 남자청소년들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나긴 하였지만, 가족에서의 가부장적 분위기와 부모의 성역할 수행의 모습은 자녀의 성별을 막론하고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부장가족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답습하는 반면, 평등가족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보다 평등한 성역할 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가족 안에서의 일차적인 사회화 과정이 성역할 태도의 형성에도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직업유무는 청소년들의 성별의 차이에 따른 변이를 보여준다. 여자청소년들에게는 어머니의 직업유무는 성역할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남자청소년들에게는 독립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전체집단에서 나타난 어머니의 직업유무가 지닌 영향력은 대부분 남자청소년들에 의한 영향력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직업이 있는 어머니를 가진 남자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남자청소년들에 비해 더욱 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 본 권력통제이론 등에서 주장한 가족의 구조와 청소년 성별에 따른 가부장적 권력의 작용이라는 논리와는 연결고리가 상반된다(Hagan et al., 1985; 1987; 1990). 권력통제이론의 시각을 따른다면,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가족은 평등가족의 형태를 띤다. 그리고 가부장적 권력의 수행대상이 주로 여자이다. 따라서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평등가족은 가부장적 권력이 상대적으로 딸에게 적게 수행되고, 딸은 가부장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동시에 일탈의 자유는 높아진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어머니의 직업으로 인한 여성 역할의 변화는 딸에게 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보면 어머니의 직업유무는 딸의 성역할 태도에 상대적인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반대로 아들에게 어머니의

직업여부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아들에게 가족구조의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어머니의 직장 생활은 아들들이 전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남성성에 바탕을 둔 가부장적 성역할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님과과의 애착 중 어머니와의 애착은 전체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애착의 경우 여자청소년들에게는 아버지와의 애착의 정도가 높을수록 가부장적인 성역할 태도를 고수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남자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청소년들의 여성성에 대한 정체감 형성에는 어머니가, 남성성의 특징을 수용하는데는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나, 양성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양부모 혹은 어느 한 부모라도 부모와의 애착의 정도가 높다는 기존 연구들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유성경 외 2007; 최해림, 2005; Arditti et al., 1991; Haigler et al., 1995). 반면, 이성의 부모와의 애착이 서로 다른 성을 이해하게 할 수 있다는 연구의 결과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Forbes & Adams-Curtis, 2000).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아버지와의 애착은 다른 성을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긴밀한 관계는 아버지가 행사할 수 있는 가부장적인 권력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역할에 따른 성역할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임으로써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종교성은 남자청소년들에게는 영향력이 없었으나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종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가부장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종교는 성역할 태도에 대해서 보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종교성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여자청소년들에게만 종교성이 영향력을 미친 것에 관해서는 몇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먼저, 본 연구의 <표 1>에서도 나타났듯이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남자청소년들보다 종교성이 더 높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종교성이 남성들보다 높다는 것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성이 높은 여성들에게서 종교의 영향이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별에 따라 종교적 가르침이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남자의 경우 종교성이 높을 경우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견지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성이 낮거나 종교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가부장적 문화 규범

속에 살아가는 한에 있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성의 여부가 성역할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말하자면 종교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가부장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이와 달라서 종교성이 낮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커져가는 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상승에서 오는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종교적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러한 사회변화에서 오는 가치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종교적인 가치를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가부장적인 성역할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 종교성은 여자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더욱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수준은 여자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 형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남자청소년들에게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수준이 여자청소년들에게만 나타난 것은 이것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자산으로 여겨진다는 점을 지지하는 것이다. 사회적 성취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남성들에게 강조되던 가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성취동기가 높거나 혹은 낮다고 해도 그것이 남성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남자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이나 개념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다. 그러나 여자들의 경우는 이와 달라서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전통적인 여성성을 극복한 것이고, 이것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성취동기나 학업성취수준이 높은 여자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여자청소년들에 비해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보다 평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이존중감이 높은 남자청소년들은 보다 가부장적인 성역할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여자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의미 있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앞서 논의한 많은 연구들에서는 양성성을 띤 집단에서 자이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 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지 않는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자이존중감과 성역할 태도 형성과는 관계가 없고,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이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이 오히려 가부장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이존중감이 자신의 존재가치와 신념, 가치관 등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자이존중감이 높은 남자청소년들은 남자라는 자신의 성에 대한 존재 가치도

함께 높임으로서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상대적인 성적 우월감을 지닐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남성 중심적 성역할 태도를 그대로 답습할 경향이 있다. 반면,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높은 자아존중감은 남자청소년들과는 반대로 여성으로서의 존재가치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만으로는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갖게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평등한 성역할 태도는 높은 여성성의 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가치로 여겨졌던 남성성의 많은 특징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느냐와 더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자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성역할 태도와의 인과관계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폭력성향은 남자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 형성에만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폭력적 성향이 높은 남자청소년일수록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폭력성은 주로 남성성의 특징이고 폭력성이 높을수록 새로운 가치질서를 수용하기 보다는 저항하고 반항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폭력성향이 높은 남자청소년들은 성역할에 대한 평등의식을 받아들이기보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를 왜곡되게 고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물리적인 힘이나 공격성이 높은 남자청소년들은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닐 확률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Heimer & De Coster, 1999). 이와 같은 논리로 여자청소년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폭력적 성향이 높은 여자청소년들은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Heimer, 1996),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여자청소년들의 폭력적 성향이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추측컨대 남자들의 경우 폭력성은 남성성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와 다시 연결되는 하나의 고리를 형성한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폭력적 성향을 나타낸다고 해도 이것이 곧 가부장적 전통을 깨뜨릴 수 있는 진취적인 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폭력적 성향 자체가 가부장적인 것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성별의 차이를 무력하게 할 수 있다. 즉 폭력적 성향을 지닌 여성이 여전히 기존의 가부장적 태도도 고수할 가능성이 농후할 수 있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각 요인들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변이하는지, 그리고 왜 성별에 따른 변이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시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별의 차이는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다양한 변인들이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지금까지 기존의 청소년 성역할 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를 비교한다든지, 남녀 청소년들의 구분 없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지니는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성역할 태도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부모, 자아존중감, 성취동기와 학업수준, 폭력성향 등과 같은 많은 연구들에서 다루어진 변인들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변이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가족구조, 어머니의 직업유무, 종교성파도 같은 사회구조적인 변인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역할 태도에 관한 연구들에서 아직까지 미흡하게 다루어진 부분에 대한 분석을 시도 하였다.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변인들 중 가부장적 가족구조는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게 청소년들에게 성역할 태도를 재생산하게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영향력은 남자청소년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말하자면, 남자들의 경우 다른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가부장적 가족구조를 더욱 쉽게 모방하여 재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직업유무가 유독 남자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에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것은 흥미로운 발견이다. 권력통제이론의 논리에 의하면 어머니의 직업은 오히려 여자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에 의미 있게 작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직장을 갖고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어머니는 가족 내의 권력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어머니의 태도는 동성인 여자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역할 모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반된 본 연구의 결과는 새로운 해석을 유추하게 한다. 어머니의 직업을 통해 보여 지는 어머니의 역할 모델이 딸의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아들이 남자로서 지니고 있는 가부장적 성역할 의식을 바꾸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구의 경우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일

상화 되어있고 남성과 비슷한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사회적 지위와 수입을 가지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경우 어머니의 직업이 가족 내에서의 권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여자청소년들은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내재화함으로써 성역할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직업참여가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 남편보다 사회적 지위와 수입의 정도가 낮다. 따라서 직업을 가진 여성이라고 해도 그것이 가족 내의 기존의 권력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여자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가 어머니의 직업유무와의 관계성이 낮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가진 어머니의 모습은 적극적인 어머니, 사회적 활동을 하는 어머니 등 기존의 전통적 여성상을 넘어서는 것으로 아들에게는 비취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아들이 여성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음으로서 성역할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가 있어 어머니의 직업유무만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는데, 만약 어머니의 직업을 다양화하여 권위적인 직업, 혹은 전문직을 가진 어머니와 그렇지 않은 어머니를 비교해 본다면 어머니의 직업이 여자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부모의 애착 중 여자청소년들의 경우에만 아버지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상이한 것인데 아마도 여자청소년들의 경우 아버지와의 친근한 관계는 이성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 뿐 아니라 기존의 아버지가 사용하는 권력에 바탕을 둔 가부장적 전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임으로서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부지불식간에 체득하는 것은 아닐까 추론해 볼 수 있다. 종교성은 여자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 형성에만 유효하게 작용하였는데, 종교의 성역할에 대한 보수성이 종교성이 깊은 여자청소년들로 하여금 보수적 성역할 태도를 답습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아버지와의 애착이 여자청소년들의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높인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수준이 여자청소년들의 경우에만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회적 성취가 여성의 지위향상으로 이어지는 여성지위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수준이 높다는 것은 여자청소년들에게 기존의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자산을 제공한다. 반면 남자청소년들의 경우 성취와 관련된 가치는 원래부

터 남성들에게 부여된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자아존중감과 폭력성향은 남자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에만 의미 있는 영향력으로 작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남자청소년들은 자신이 내재하고 있는 남성성의 가치도 함께 소중하게 여김으로써 성적인 우월감을 지닐 수 있다. 폭력성 또한 남성적, 가부장적 상징과 깊은 관련이 있고 폭력성향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것을 순차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기존의 것을 왜곡하여 고집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폭력성향은 남성들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성역할 평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해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여러 인과요인들이 단편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라, 각각의 성이 내재하고 있는 여러 가치와 개념들이 서로 복잡하게 맞물리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성역할 태도는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라 민감하게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성역할 태도를 지니게 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여러 교육이나 환경이 성별에 따라 차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차적 사회화는 성역할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배제한 성평등 교육은 큰 성과를 얻기 힘들다. 따라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역할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재교육도 꾸준히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어머니들의 직업 활동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음은 남자청소년들이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시각을 바꾸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성평등 태도를 가지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종교의 경우, 남녀의 성역할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종교적인 신앙과 더불어 공존 할 수 있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여성 목사, 여성 주지, 여성 사제 등 각 종교의 지도자들 중 여성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종교적 신앙이 성평등 의식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여자청소년들의 학력 증가 현상은 성취동기와의 관계가 있으며 사회적 전문인과 리더의 역할을 더 많은 여성들이 맡게 됨으로서 점진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성역할 평등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이러한 효과들이 전통적인 사회적인 규범이나 가부장적인 가치에 의해 영향력이 상쇄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남자청소년

년들의 경우도 고정관념화된 남성성의 가치를 강조하기 보다는 다양한 가치를 제안하고 진취성, 모험성, 용감성 등이 폭력성이나 가부장적 권력의 상징들과 연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청소년들이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바탕을 둔 성역할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점들을 지니고 있다. 먼저 자료의 제한성이다. 자료의 표집대상이 중소도시의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의적으로 표집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대표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생 또는 공식적인 학교교육에서 제외된 청소년들도 포함 될 경우 연구의 결과가 달리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횡단적인 연구가 지니는 단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역할 태도의 분석에서 다루어진 여러 변인들과의 인과관계의 설정이 달라질 수 있다. 또 하나 짚어봐야 할 것으로 측정치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성역할 태도, 가부장가족,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등 이러한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다양하고 의미 있는 측정치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라 어떤 식으로 변이를 하는지를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시도한 점은 후속연구들을 위한 경험적인 바탕을 제공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곽삼근·조혜선·윤혜경(2005). 생애주기별 성역할 발달 및 갈등, 한국여성학, 제21권 제2호, pp.147-179
- 김소정(2008). 청소년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성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6권, pp.129-149
- 배경의·강향희(2007). 부산지역 남자 고등학생의 성태도, 성행동 및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건강학회지, 제10권 제1호, pp.36-47
- 오윤자(2003).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과 통제소재, 학업성취수준에 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제17권 제2호, pp.315-330
- 유가효(1993). 아동 후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성역할발달에 관한 연구: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이데올로기,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제15권 제1호, pp.127-144
- 유성경·이향심·황매향·홍세희(2007). 학업우수 여학생의 부모애착,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 및 진로장벽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3호, 357-380
- 이숙(1984). 한국 대학생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발달 및 자아존중감과와의 관계: 대전 시내 전문대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제1호, pp.163-168
- 이윤석(2004).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혼 및 성격할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2004년 가을 기획심포지움, pp.49-70
- 이재연(1983). 여자대학생의 장래계획과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 아시아여성연구, 제22권, pp.87-98
- 정선영·조원탁·이정숙(2002). 여성알콜중독자와 정상여성의 성역할 정체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및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보건과 복지, 제5권, pp.119-131
- 정옥분(1986). 한미 양국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존감에 대한 비교문화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4권, pp.123-137
- 정진경(1990). 한국성역할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제5권 제1호.
- 최해림(2005). 부모애착, 자동적 사고, 성역할정체감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제3호, pp.599-616
- 홍성례(2007). 자아존중감과 성역할태도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청년기 남녀

- 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제5호, pp.37-51
- Arditti, J. A., Godwin, D. D. & Scanzoni, J.(1991). Perceptions of parenting behavior and young women's gender role traits and preferences, *Sex Roles, Vol.25*, pp.195-211.
- Bem, S. L.(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42 No. 2*, pp.155-162.
- Berk, L. E. (2003). *Child Development*(6th ed.), Boston: Allyn & Bacon.
- Dittus, P. J., Jaccard, J., & Gordon, V. V.(1999). Direct and nondirect communication of Maternal Beliefs to adolescent motivations for premarital sexual activi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29*, pp.1927-1963.
- Forbes, G. B., & Adams-Curtis, L. E.(2000). Gender role typing and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0 No. 2*, pp.258-260.
- Giddens, A.(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gan, J., Gillis, A. R., & Simpson, J.(1985). The class structure of gender and delinquency: Toward a power-control theory of common delinquent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0*, pp.1151-1178.
- Hagan, J., Gillis, A. R., & Simpson, J.(1987). Class in the household: A power-control theory of gender and delinqu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2*, pp.788-816.
- Hagan, J., Gillis, A. R., & Simpson, J.(1990). Clarifying and extending power-control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5*, pp.1024-1037.
- Haigler, V. F., Day, H. D. & Marshall, D. D.(1995). Parental attachment and gender role identity, *Sex Roles, Vol. 33*, pp.203-220.
- Heimer, K.(1996). Gender, interaction and delinquency: Testing a theory of differential social control,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59 No.3*, pp.9-61.
- Heimer, K., & De Coster, S.(1999). The gendering of violent delinquency, *Criminology, Vol. 37 No. 2*, pp.277-312.
- Lottes, I. L., & Kuriloff, P. J. (1992). The effects of gender, race, religion, and political orientation on the sex role attitudes, *Adolescence, Vol. 27 No. 107*, pp.675.

- Moore, K. A., Peterson, J. L., & Furstenberg, F. F.(1986). Paternal attitudes and the occurrence of early sexual activ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8, pp.777-782.
- Morgan, M. Y. (1987). The impact of religion on gender-role attitud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Vol. 11 No. 3, pp.301-310.
- Petersen, L. R., & Donnenwerth, G. V. (1998). Religion and declining support for traditional beliefs about gender roles and homosexual rights, *Sociology of Religion*, Vol 59 No. 4, pp.353-371.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pence, J. T., & Helmreich, R.(1978). *Masculinity and femininity: Their psychological imensions, correlation and antecedents*. Austin, TX: Texas University Press.
- Voicu, M. (2009). Religion and gender across europe, *Social Compass*, Vol 56 No. 2, pp.144-162.
- Whitely, B. E.(1983). Sex role orientation and self-esteem: A critical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4, pp.765-778.

## ABSTRACT

### A Study of Variation of Control Variables on Adolescents' Gender-Role Attitudes :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Kim, Jeong-Gyu\*

Using questionnaire data from a sample of 1,139 adolescents, this study examines the various effects on adolescents' gender-role attitudes. Beyond a simple bivariate relationship,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effects of a patriarchal family, mother's employment, parental attachments, religiosity, motives for achievement, GPA, self-respect, and violence vary according to adolescent gender. The results indicated that female adolescents are more likely to have egalitarian gender-role attitudes than male adolescents. The strongest effect on gender-role attitudes is the adolescent's gender difference in the total group. Adolescents who are raised in patriarchal families are more likely to have egalitarian gender-role attitudes. Male adolescents whose mothers have jobs outside the home are less likely to have traditional gender-role attitudes, but the effect of the mother's employment is not found in female adolescents. Only female adolescents who have strong relationships with their fathers tend to have traditional gender-role attitudes. Higher religiosity increases traditional gender-role attitudes for only female adolescents. Female adolescents who have higher motives for achievement and higher GPAs have much more egalitarian attitudes regarding gender-role, but there are no significant effects for male adolescents. Male adolescents who have higher levels of self-respect and violent characteristics tend to have lower egalitarian gender-attitudes. The implication is that gender difference forms a differential structure of constraints that shapes adolescent gender-role attitudes.

**Key Words** : adolescent, gender-role attitude, gender difference

투고일 : 3월 5일, 심사일 : 4월 23일, 심사완료일 : 5월 17일

---

\* Department Of American Studies, Keimyung University